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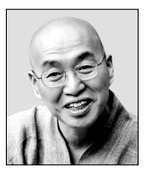
성역화불사 동참

경선 부산 범어사 주지 스님은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성역화불사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발전기금 기부

원산 양산 백련암 주지 스님은 2월 22일 동국대에 학교발전 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 구치소 콘서트 강연

법륜 스님은 2월 22일 부산구치소를 찾아 재소자들과 함께 즉문즉답 형식의 콘서트를 진행했다.



춘계철야정진

전근홍 산청 보림선원 선원장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춘계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고려대불자회장 취임

최평규 불교포럼 운영위원은 2월 18일 행불선원에서 개최된 고려대 불자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군불총 17주년 기념법회

구흥모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수방사령관)은 2월 24일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국군불교총신도회 1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문화포교 작은 관심부터 시작"

Interview 제10회 '연꽃들의 노래' 여는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08년 처음 공연할 때가 생각납니다. 모이는 것조차 어려운 장애인 회원들과 함께 해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함께 불심을 이어가자는 마음에서 이어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도 불심만큼은 뜨겁거든요. 다른 불자 분들의 따뜻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자 장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불심으로 한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문화포교의 장이 열린다. 불자 장애예술인 모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4월 25일 오후 7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10번째 공연 '연꽃들의 노래'를 개최하는 것이다. 10번째 공연 동안 묵묵히 이를 뒷바라지해온 이가 있다. 바로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다.

뇌성마비를 앓은 최명숙 대표는 "장애인들이라면 보호받아야 될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뒤처지는 사람으로 생각되기 마련"이라며 "이런 편견을 깨는 자리로 꾸준히 '연꽃들의 노래'를 열어왔다"고 소개했다. 최 대표는 "작곡부터 노래 등 불자 장애인들도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꾼"이라고 거듭 관심을 호소했다.

재능기부 통해 도움 받아
200여 회원, 곳곳서 전법
신심 증장 순례도 추진 중

보리수아래는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 권유로 2006년 7월 창립됐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 법인 스님을 지도법사로 전국 장애예술인들이나 이에 관심 있는 이들을 모아 월 1회 법회를 열고 네이버 카페(cafe.naver.com/borisu0708) 등 인터넷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10회 '연꽃들의 노래'에서는 불자 장애인 12명이 창작한 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악에 수화, 마임, 오카리나 및 섹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선보인다. 공연에 앞서 보리수아래는 음반 2000장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15명의 예술인들이 편곡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다"며 "굳이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시지 않아도, 음반이나 홍보책자 디자인 작업 등에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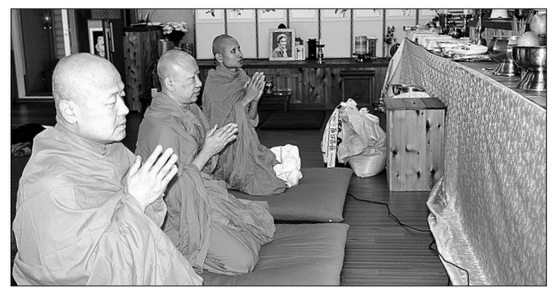
보리수아래는 현재 조계종 중앙신도회관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최 대표는 "중앙신도회장님이 마땅히 모일 장소가 없다는 사연을 듣고 회관을 흔쾌히 대여해 주셨다. 그동안 사찰에서는 문턱이 있어 지체장애인분들이 오시기 힘든 점이 있었는데 회관의 경우 원활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장애인 포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관심, 마음이다"며 "청각장애인은 수화, 지체장애인들은 움직임 등 각기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 불교계 곳곳에서 따뜻한 배려가 보다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200여 회원 중 불자가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들이 각기 교회나 성당에 가서 불교계의 이런 따뜻한 관심에 대해 알려나가는 전법사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 중에 글 쓰는 분들이 많은데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시집을 내고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한 순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힘 닿는데까지 장애인 문화포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국제불교문화진흥협, 태국 법회



사단법인 국제불교문화진흥협회(회장 이종목)는 2월 11일 대구 성불사 부설 논공타이센터에서 정월 대보름(음력 1월15일)을 맞아 태국 마하출라롱컨대학교 교수 쌈만 스님 초청 태국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쌈만 스님, 쌩쑤라 스님과 반야씨리 스님, 성불사 주지 옥담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쌈만 스님은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사는 것이 걸림 없이 살아가는 법"이라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후원 하나, 네팔 아동 삶 바꿔요"

한국자비공덕회 18일 '네팔어린이 후원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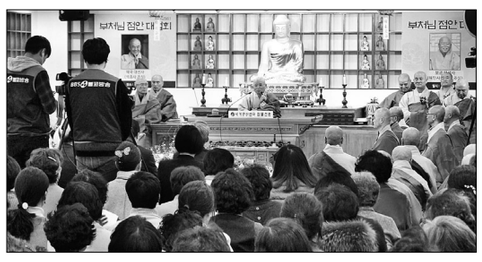


조계종 향운사(주지 지상) 소속 한국자비공덕회는 2월 18일 마포 올레스토랑서 '네팔어린이 희망장학금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상 스님, 최오균 한국자비공덕회 운영위원장, 끼런사껴 네팔 대리대사, 이근후 가족아카데미아 이사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서는 경과보고, 활동 동영상 상영, 감사편지 낭독 및 네팔 전통가무 공연, 네팔식 점심공양 등 진행됐다.

이승희 기자

서울 참불선원, 석가모니불 점안

초기불교 형태로… 보광 · 혜국 스님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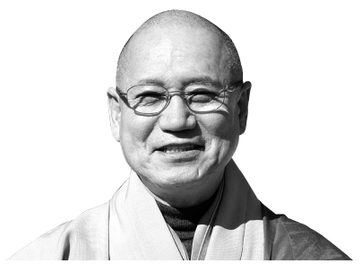
서울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2월 17일 경내 법당서 '부처님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고, 점안식과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 ·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초청법문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전국선원 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을 비롯한 수좌스님들과 선상신 불교방송사장, 정연만 前환경부차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10여 년간 각고의 기도 끝에 조성한 초기불교 원형불상에 두 분의 선지식과 수좌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을 점안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금정 불교 발전 견인차 역할"

Interview

부산금정구불교연합회 신임회장 고담 스님



"부산 금정구불교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 사찰 동참을 이끌어 내고 조직을 구체적으로 구성해 여러 대덕 스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부산불교의 화합에 이바지 하고 지역구 활동을 통해 금정구 지역 포교에 앞장설 것입니다."

부산금정구불교연합회 신임회장에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2월 20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담 스님은 금정구 지역의 불교 역할 활성화 및 포교를 위해 회원 사찰 동참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고담 스님은 "2012년 조사결과 금정구내 현재 등록된 사찰이 81개이다. 하지만 현재 금정구불교연합회 활동은 전무한 상황이다. 오늘 이렇게 급히 임명장을 받게 된 것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이신 경선 스님의 당부처럼 소통과 단합을 위해 노력해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란 뜻으로 알고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님은 "금정구불교연합회 활동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부산불교연합회의 여러 활동에 조력하는 것이다. 회장 경선 스님은 현재 여러 과제 중 신행 단체 및 승가의 화합을 강조하고 계신다. 함께 발맞춰 힘을 다해 돕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담 스님은 부산 금정경찰서 경승, 청송교도소 교정위원회 고문, 대구지방교정청 운영위원, 법무무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고 인재불사 및 지역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네팔 대지진 당시 3만 달러 성금 전달, 부산대 행정고시생 지원, 동국대 장학금 및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 또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에서 '모범선행시민상'과 부산 금정구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을 받았다. 이날 임명식에서도 백미 50포 1000kg을 지역민을 위해 회향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임명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경담 스님, 연화종 종정 동원 스님, 법해사 주지 탄준 스님, 보광정사 주지 지홍 스님과 천불정사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법사대 제25회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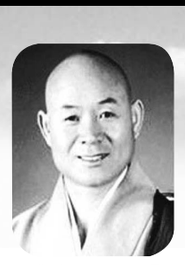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학장 지일)은 2월 12일 동국대에서 제25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품수식에서는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원과정(5년), 불교석학과정(2년) 수료생 100여명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